

# “전남, 세계적인 농·수·축산 생명산업벨트로 만들겠다”

## 전남지사 유력 후보 인터뷰 - 김영록 국회의원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잘 잊어낸 뒤 다시 양념을 한 목은 김치를 좋아했다. 고향 안도의 98세 노모 이야기를 자주 하며, 목은 김치에 밥 한 그릇을 똑딱 비웠다. 당의 창당 일정 탓에 늦은 저녁을 겸한 인터뷰에서 그는 “전남 발전을 이끌 인재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앙 부처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면서 느꼈던 지역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전남도의 정책과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공약단체장은 “정치 보다는 행정 경험이 많은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꼽는다면?”

▲무엇보다 인재를 키워야 한다. 중앙부처에서 지역 인재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부처의 예산담당, 기획담당은 거의 전남 출신을 찾아볼 수가 없어 답답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 인재 부족은 결국 전남의 침체로 이어진다.

또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경쟁력을 가진 친환경 농·수·축산업을 첨단기공산업과 유통산업을 결합시켜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2020년부터는 전 세계적인 식량부족으로 인해 친환경 농·수·축산업이 가장 부가가치가 큰 산업으로 전환될 것이다. 전남을 세계적인 농·수·축산 생명산업벨트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전남 도정 가운데 가장 잘되고 있는 것과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친환경 농업 육성은 좋은 정책이다. 전남의 친환경농수산업은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 1차산업이라고 불려왔던 농수산업이 이제는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친환경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농수산업의 중심지로서의 강점을 살려 권역별로 중점 품목을 특성화한 뒤 생산·가공·유통 혁신을 통한 세계 일류 농수축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숙제도 남겼다.

가장 실패한 정책은 F1 한국대회다.

“그렇다면, F1 한국대회의 지속 개최에 대한 생각은?”

▲F1은 8조원대의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이라는 긍정적 요소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1910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8조원에 이르는 브랜드 가치는 국가가 쟁기고, 전남도는 한 푼의 이익이커녕 대규모 부채만 짊어지게 됐다. 정부지원과 관련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상황에서 운영적자로 재정이 어려운 전남도의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F1 실패 책임의 50%는 국가에 있다.

지속개최는 전남도민의 입장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재협상을 통한 개최권료 인하, 운영비 절감, 메인스폰서 유치, 정부지원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남발전을 위한 자신의 비전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생명산업벨트다. 미국 디트로이트의 사례를 유심히 봐야 한다. 한때 자동차도시로 성공했지만 유령 도시로 전락했다. 공업도시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전남을 세계적인 농수축산생명산업벨트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 전남의 농수축산업을 첨단기공산업과 유통산업과 결합시켜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바이오산업 육성과 활발한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 ■전남지사가 되면

인재육성이 가장 중요

전남~제주 해저터널 뚫어

경제·관광 활성화 하겠다

### ■공천 방법은

선거인단 5천~1만명 선발

완전 국민경선 실시를

권역별 토론회로 정책경쟁

“새정치민주연합의 나아갈 방향은?”

▲민주주의 회복과 통일, 농어민과 서민 중산층을 대변하고 정권교체를 통해 호남인의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야당 분열과 호남에서 야당끼리의 경쟁은 수도권에서 필패로 이어지고, 이는 박근혜 정부의 독주를 심화시켜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행히 이번 신당 통합선선으로 새누리당의 독주를 저지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

새정치, 개혁, 혁신의 결론은 정권교체다. 정권교체가 아니면 새정치를 펼칠 기회조차 없는 것이다. 새정치와 새인물을 통해 국민을 위한 새시대를 만드는 것, 국민과 함께 노력해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 또 통합의 정신을 살려 친노, 비노, 주류, 비주류 등 보이지 않는 당내 계파도 하나로 묶어야 할 것이다.

“당 경선이 곧 당선이었다. 가장 바람직한 전남지사 공천 방법은?”

▲전남지사의 경선 방법은 전남도민들의 의사가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전남지역은 예산이 본선이 다름없는 비정상적인

구조다. 기존 민주당원들의 권리승계가 바람직한 방향이나 당원이 없는 새정치연합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존 민주당원들의 톤근 양보가 필요하다.

전남도 유권자 중 지역별·성별·연령별 비율을 고려해서 5000명~1만명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완전국민경선 선거인단 구성을 제안한다. 전남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토론회를 실시해 후보자들이 오로지 정책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야 한다.

“전남지사 공천과정에 전략공천이 이뤄진다면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

▲전략공천을 한다던 이는 새정치가 아닌 구대정치라고 할 것이다. 후보자 결정은 후보자간 공평하고 깨끗한 경선, 전남의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경선, 후보자와 도민이 함께하는 축제 같은 경선이 돼야 한다. 현시점에서의 전략공천은 후보자도 전남도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현재 생각보다 지지도가 오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대책은?”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적합도나 호감도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후보간 공개토론회 등 정책선거를 통해 기회가 많아진다면 경선과 본선 모두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일부에서 정책선거가 아니라 동부권, 서부권 등 동·서간 대결 구도로 풀이되고 있고, 불법선거운동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선거구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전남이 고질적인 지역 감정 of 가장 큰 피해 당사자임에도 이번 전남지사 선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 동서 대결구도, 소지역주의를 부추기는 후보에 대해서는 현명한 전남도민들이 단호한 심판을 할 것으로 믿는다. 전남지사 선거는 정책선거, 인물선거로 치러져야 한다.

“소지역주의를 비판했는데, 이런 선거 구도를 개선할 방법은 있는가?”

▲정책 선거다. 전남이 모두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해법이다. 광양·여수산업단지, 목포를 중심으로 한 조선산업, 서남해안의 양식산업, 영광을 중심으로 한 방산산업, 고흥의 우주개발산업, 나주의 농축산가공산업, 화순의 의료산업, 담양·장성의 헬스케어, 장흥의 대체의약산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전남~제주 해저터널 건설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실현 가능성은?”

▲전남이 호남선 KTX와 연계한 중국 및 유라시아의 관광·경제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전남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SOC 확충이 필요하다. 전남은 역사, 문화와 예술, 관광과 휴양, 생태, 경관 등에서 무엇보다 빠지지 않는 천혜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도로, 철도, 연도·연륙교, 해상교통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없는 한 관광산업, 지역경제 활성화는 더디고 암울해진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사진=니평주기자 mjna@kwangju.co.kr

## 주요 공약

### 10만 인재 키워 글로벌 경쟁 ‘신 해양시대’ 준비

민주당 김영록 의원의 공약은 전남 발전을 이끌 인재 육성과 ‘신해양시대’ 준비가 핵심이다.

그는 “전남은 새로운 도전의 에너지와 활력이 있어야 하고, 중국과 아시아 시장을 상대로 한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전남이 한서해안시대의 심장부로 도약해야 하고 21세기 아시아시대, 신해양시대의 심장부로서 도약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 전남부흥플랜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인재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부처에서 지역인재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와 그리고 산업현장, 농어촌에서 전남발전을 견인할 ‘10만 인재 키우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청정 농수산업의 강점을 살려 전남을 세계적인 농수축산생명산업벨트로 육성·발전시켜겠다는 공약도 준비하고 있다. 1차 산업에 머무르고 있는 전남의 농수축산업을 첨단기공·유통산업과 결합시켜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토록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생산·가공·유통혁신을 통해 도시와 농어촌을 융복합 산업지역으로 전남을 바꾸어 나가고 다가오는 바이오경제시대에 대비한다는 전략이다.

전남의 역사, 문화와 예술, 관광과 휴양, 생태, 경관을 함께 아우르는 문화관광산업 육성도 빼놓을 수 없는 그의 공약 중 하나다. 전남이 보유한 역사와 문화자원,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체험관광, 휴양형관광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한서해안시대의 중심축이 되기 위한 SOC 관련 공약도 준비하고 있다. 광주~목포간 KTX 고속철도, 광주~목포간 KTX 고속철도, 광주~순천간 KTX 고속철도, 광주~순천간 경전선 복선화 등을 앞당기고, 유라시아철도를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양수산양식산업의 허브인 전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연도·연륙교, 해상교통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도 약속했다.

이밖에 도시와 농어촌에 젊은 인재유입을 늘리고, 산·학·연계 연구 투자 관련 공약도 준비하고 있다.



**삼학양조** **삼학양조(주)**

그때 그 시절 "친구"처럼 함께했던 추억의 술 "삼학"!!!

언제나 좋은 벗으로

우리곁에 돌아오다!

인도네시아 수출계약체결

한국 최고의 청정지역 지리산 청학골의 지하 200M 천연 맥반석 암반수로 빚고 국내 유일 녹차추출물 100% 함유로 뒤끝이 깨끗한 술!!

직매장 운영주 및 대리점 모집

"삼학" 과 함께할 참신한 사업주를 모집합니다. 상담전화 02)865-3301~2

## 걸어온 길

지난 1955년 완도에서 7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이후 광주 서석초등학교, 서중학교, 광주제일고등학교에 진학해 완도와 광주를 오가며 자랐다. 고교 3학년 때 고향을 돌아 대학 진학은 남들보다 2년 늦었지만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재학시절 제2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그는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집안이 힘들어졌고 고향에 홀로 남은 노모의 걱정 탓에 대학시절, 앞장 서서 반정부 데모를 이끌지 못

## 전남도 행정부지사 역임 ... 18·19대 국회의원

한 점이 두고두고 후회된다”고 말했다.

1978년 전남도청 사무관을 시작으로 공직에 몸 담았다. 내무부 사무관 5년 동안 중앙부처 실무를 익혔고, 2001년부터 5년간 행정자치부에서 총무과장, 홍보관리관을 거쳤다. 30대의 나이로 강진군수, 완도군수를 역임하고, 목포부시장, 전남도청 경제국장, 자치행정국장, 행정부지사를 역임했다.

강진군수 재직시, 남다른 가뭄피해 보고를 해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관

심을 이끌어 낸 일화가 유명하다. 단순한 피해보고가 아닌,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경우 벌어질 피해를 예측해 피해구복비 등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이후 지난 2008년 해남·완도·진도 지역에서 18대 국회의원선거에 도전, 무소속으로 당선됐고, 19대 국회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제19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며,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을 지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